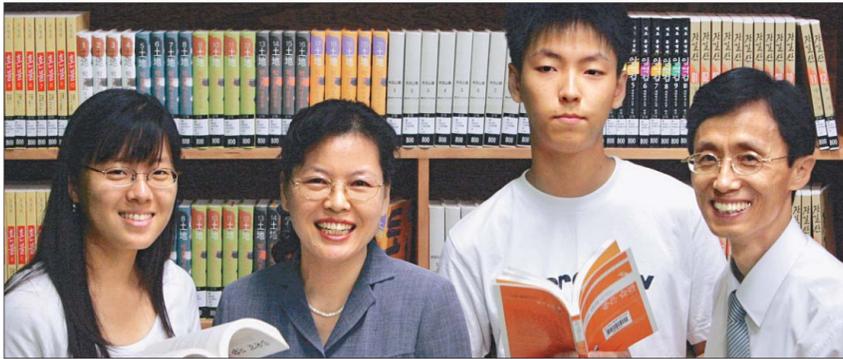


'붕어빵 교육' 가라... 폭발하는 代案학교 (1)

새로운 교육을 찾는 사람들

고학력·전문직 학부모들 '혁명' 이끈다

섬유사업을 하고 있는 조창근(47)씨는 고2, 중3인 두 딸이 대안학교인 이우학교(경기도 분당)에 다니는 것에 흡족해 하고 있다.



교사이면서 자녀들을 대안학교에 보낸 이준원(맨 오른쪽)·김은정씨 부부가 방학 중인 천양(한동대)·친수(세인고) 남매와 함께 인근 초 도서관을 찾았다. '학교' '공부' 이야기만 나오면 부모와 자식 모두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특이한' 가족이다. 채승우기자 (블로그:rainman.chosun.com)

교수·의사·교사·사업가 자녀 크게 늘어 강지원 변호사 "두 딸이 학교·진로 선택"

입시훈련에 인생낭비 "10년후 주류교육 바뀔 것"

대안학교는 더 이상 '소수의 의식 있는' 부모들이 보내는 곳도, '그들만의 대안학교'도 아니다. 그 흐름은 고학력·전문직 학부모가 주도하고 있다.

"아이들이 양육되는 병아리처럼 획일적 교육을 받으면 스스로의 개성도 살릴 수 없고, 결국 개인도 불행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 있다. 작은딸 선형은 이우학교에 다니고 있다. 옷만들기에 소질이 많은 선형은 디자이너가 아닌 옷수선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한다.

이태우 교수는 가끔 동료교수들로부터 어떻게 대안학교에 보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 교수는 "새로운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는 교육 문제 차원이 아닌 삶의 가치관 문제"라고 했다.

엔 대안교육이 '주류 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 취재팀>

팀장·양근민기자 (카페:study.chosun.com) 안석배기자 (블로그:sbahn.chosun.com) 정시행기자 (블로그:polygon.chosun.com) 이완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년)

"매년 대학 신입생들을 보면 자기 목표도 없이 부모가 취업이 잘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 그렇게 4년을 보내면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중고교 때부터 자기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여년간 교단을 지키고 있는 중·고교 교사 부부 이준원·김은정씨. 대학 3학년인 딸은 대안학교인 전복 세인고 출신이고 아들은 현재 세인고에 재학 중이다.

이씨는 지금도 학교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주요 과목으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개개인의 재능이 무시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학력 테스트도 서울 인문高 늘려 '이우학교'

'도심 통학형'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는 학생 중 85%가 성남(분당)·용인에서 통학한다. 나머지는 서울과 과천·군포에서 오는 학생들이다.

대안·독서)에 소속돼 있다. 홈페이지 '학부모방'에는 늘 새로운 글과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아이들이 통합기행으로 경기도 도보행단을 했습니다" "학교에 야생화를 심으면 어떨까요" "○○○선생을 초청해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정광필 교장은 "교과지원위원회에 속한 학부모님이 50여명 된다. 대부분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이 분들이 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태극기 무료배부는 선거법 위반"

서울시, 선관위 통보에 1000원씩 받기로

백연필

○...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청 본관 전면에 설치됐던 태극기(135cm×90cm) 3600장(사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자에게도 주는데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태극기를 그냥 폐기하라는 말이나"고 어이없어 했다. 서울시는 일단 9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추첨 당첨자들로부터 1000원씩 받고 태극기를 나눠주기로 했다.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날씨' (Today's Weather), '지역별 날씨' (Regional Weather) map, '비율 확률(%)' (Precipitation Probability) bar chart, and '주간날씨' (Weekly Weather) table.

WHISEN advertisement featuring a star rating and the text '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5 years consecutive world sales 1st place).

ENCT 영어마을 advertisement for Real English City. It includes the website www.enct.co.kr, the slogan '국내최초 사립 영어마을 ENCT 영어마을', and details about classes and facilities.